

창조경제의 원동력은 품질,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

2013-11-28 08:49:18

국가품질대상에서 LS산전, 한국남동발전, 국가품질경영상에 한국남부발전, 호텔 롯데 롯데월드, 은탑에 삼양홀딩스 김량 부회장, 풍산 박우동 방산총괄대표, 태영 세라믹 이대영 대표 등이 수상했다.

한국표준협회는 28일 서울 삼성동 한전 한빛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및 수상기업 임직원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회 국가품질경영대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국가품질경영대회'는 품질경영 활동으로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해 활기찬 시장경제 달성에 기여한 공로자와 유공단체를 서훈·표창하고, 전국의 근로자와 기업인이 한 자리에 모여 노사화합 등 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결의로 품질은 국민행복의 창조경제 실현을 다짐하기 위한 행사다.

품질유공자 부문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삼양홀딩스 김량 부회장, 풍산 박우동 방산총괄대표, 태영세라믹 이대영 대표가 수상했다. 홍조근정훈장에는 송실대학교 유한주 교수, 철탑산업훈장은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서병삼 부사장 등 품질유공자 부문에서 총 72명이 수상했다.

품질유공 단체부문에서는 국가품질대상을 수상한 LS산전, 한국남동발전 등 14개 단체의 대통령표창을 포함해 총 20개 단체가 수상했다. LS산전은 비전인 'Green Innovators of Innovation'을 실현하기 위해 'World Class 3P(People, Process, Product)'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의 전개와 윤리경영활동의 정착, 사회적 책임활동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활동을 실천함으로써 동종업계 대비 높은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 국가품질혁신상 품질경쟁력혁신 부문에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명품창출부문에는 신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특히 신원은 창업주인 박성철 회장이 수출 및 내수 전체 부분에 직접 관여하여 브랜드 론칭부터 전개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방향(비전, 전략, 방침 등)설정 및 전개 과정을 리드하고 있다. 아울러 회장이 직접 각종 회의체를 주관하여 효과적으로 명품 브랜드경영을 실현의 공적을 인정 받았다.

그동안 다양한 개선활동을 통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품질분임조에 대한 수상도 이뤄졌다. 품질분임조는 현장 사원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개선 동아리

로 기업 현장에서 매년 9만여 건의 현장 문제를 해결하여 연간 약 2조원의 재무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우수분임조로 입상한 S&T중공업 무한질주 분임조 등 96팀에 금메달, 93팀에 은메달, 96팀에 대해 동메달을 수여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사 맨위로](#)

[참담기](#)

국가품질경영 대상에 LS산전 · 남동발전

2013-11-28 11:19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LS산전 · 한국남동발전이 '국가품질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한국남부발전 · 호텔롯데 롯데월드는 '국가품질경영상'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품질유공자 부문에서는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을 삼양홀딩스 김량 부회장 · 풍산 박우동 방산 총괄대표 · 태영세라믹 이대영 대표가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회장 김창룡)가 주관하는 '제39회 국가품질경영대회'가 28일 오후 서울 삼성동 한전 한빛홀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홍조근정훈장은 송실대 유한주 교수**, 철탑산업훈장은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서병삼 부사장 등 품질유공자 부문에서 총 72명이 수상했다.

품질유공 단체부문에서는 국가품질대상을 수상한 LS산전, 한국남동발전 등 14개 단체의 대통령표창을 포함해 총 20개 단체가 상을 받았다.

특히 올해 신설된 국가품질혁신상 품질경쟁력혁신 부문에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명품창출부문에 신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품질분임조부문은 우수분임조로 입상한 S&T중공업 무한질주 분임조 등 96팀에 금메달, 93팀에 은메달, 96팀에 대해 동메달이 수여됐다.

한편 1975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527개 품질경영우수단체, 901개 품질경쟁력우수기업, 1859명의 유공자, 4765개의 우수 품질분임조, 1356명의 품질명장, 90명의 우수제안자가 수상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인쇄하기 | 닫기

LS산전·한국남동발전 등 국가품질대상 수상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3-11-28 14:43

한국표준협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LS산전과 한국남동발전 등 14개 단체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단체부문 국가품질대상을 받았다.

한국표준협회는 28일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9회 국가품질경영대회를 개최했다.

품질유공자 부문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김양 삼양홀딩스 부회장, 박우동 풍산 방산총괄대표, 이대영 태영세라믹 대표 손에 쥐어졌다.

홍조근정훈장은 유한주 송실대 교수, 철탑산업훈장은 서병삼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에게 돌아가는 등 72명이 품질유공자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올해 신설된 국가품질혁신상 품질경쟁력혁신 부문 수상자 명단에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가, 명품창출 부문에는 신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우수분임조로 입상한 S&T중공업 무한질주 분임조 등 96팀에 금메달, 93팀에 은메달, 96팀에 동메달이 돌아갔다.

또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경영 활동에 헌신해 귀감이 되는 모범 근로자 24명을 국가품질명장으로 지정하고 국가품질명장패를 수여했다.

runran@yna.co.kr

▶ 연합뉴스앱 ▶ 인터랙티브뉴스 ▶ 화보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기사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6621826>

인쇄하기

취소

국가경쟁력 강화 힘쓴 '품질경영인' 축제 열려

제39회 국가품질경영대회, 444개 시상

머니투데이 정지은 기자 | 입력 : 2013.11.28 15:00

품질경영 활동으로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유공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8일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열린 국가품질 시상식인 '제39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올해 품질경영 활동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하는 행사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다. 올해에는 정부포상 47개를 비롯해 총 444개의 상이 유공자와 유공단체, 분임조에게 돌아갔다.

이날 행사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및 수상기업 임직원 160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품질유공자 부문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김량 **삼양홀딩스** 부회장과 박우동 풍산 방산총괄대표, 이대영 태영세라믹 대표가 수상했다. 김 부회장은 27년간 업무 현장에서 지속적인 품질경영과 혁신활동으로 원가절감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한주 숭실대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고 서병삼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이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품질유공자 부문에서 총 7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품질유공 단체부문에서는 국가품질대상을 수상한 **LS산전**과 한국남동발전 등 14개 단체의 대통령표창을 포함해 총 20개 단체가 수상했다. LS산전은 월드클래스 3P(Product, Process, People)를 경영이념으로 삼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의 전개와 윤리경영활동의 정착, 사회적 책임활동을 기반으로 지속가능 경영 활동을 실천했다는 평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국가품질혁신상 품질경쟁력혁신 부문에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가, 명품창출부문에는 신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신원은 창업주인 박성철 회장이 수출 및 내수 전체 부문에 직접 관여해 브랜드 론칭부터 전개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방향 설정 및 전개 과정을 리드한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개선활동으로 경제 성장을 이끈 품질분임조 285개 팀에 대한 수상도 이뤄졌다. 품질분임조는 현장 사원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개선 동아리다. 이 상은 S&T중공업 '무한질주 분임조'를 비롯해 96팀이 금메달을 받았고 은메달은 93팀, 동메달은 96팀에게 돌아갔다.

산업현장의 건전한 근로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경영 활동에 헌신해 귀감이 되는 모범 근로자 24명에 대해선 올해의 국가품질명장으로 뽑아 국가품질명장패를 수여했다.

한국표준협회 관계자는 "이 행사는 품질경영 활동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전국의 기업인과 현장 근로자들이 함께 산업 발전의 결의를 다지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